

‘1만원에 무제한 맥주’...강진 하맥축제 다시 돌아온다

오는 28-30일 강진종합운동장

1천석 좌석 추가·생맥주 전환

위터밤 여신 권은비 등 라인업

올여름 강진에서 맥주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강진 하맥축제’가 한층 향상된 콘텐츠와 운영으로 다시 돌아온다.

4일 강진군에 따르면 제3회 강진하맥축제는 오는 28-30일 3일간 강진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되며, 관람객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축제 전반을 대폭 개설했다.

먼저, 지난해 많은 관람객이 물리면서 발생했던 사전예약석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천석의 좌석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보다 여유로운 관람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강진 하맥축제에서 열린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맥주 마시기 대결을 펼치고 있다. <강진군 제공>

또한 긴 맥주 대기줄 해소와 시원한 맥주 제공을 위해 냉장 컨테이너와 생맥주 디스펜서를 대폭 증설했다.

특히 지난해 병맥주로 제공됐던 ‘하멜촌맥주’는 올해부터 병영양조장에서 생산한 생맥주로 전면 교체돼 축제 현장에서 더욱 신선한 맛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 라인업도 눈길을 끈다. 축제 첫날인 28일에는 대한민국 대표 록밴드 체리필터와 공연의 신 이승환이 무대에 오르며, 29일에는 래퍼 신스와 힙합 듀오 다이나믹듀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위터밤 여신 가수 권은비가 강렬한 퍼포먼스로 무대에 오른다. 유명 DJ들이 함께하는 EDM 파티도 마련돼 무더운 여름밤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관람 방식은 일반석과 사전예약존으로 나뉘며, 일반석은 1만원에 맥주 무제한 제공이 포함

되고, 사전예약존은 공연 무대와 가까운 전용 좌석에서 맥주 무제한 혜택을 즐길 수 있는 특별존이다.

사전예약존은 총 171개 테이블로 구성되며, 이중 135개 테이블은 지난달 28일부터 예매처 ‘티켓링크’를 통해 6인 기준 10만원에 예약할 수 있다.

나머지 36개 테이블은 강진 관내 상가에서 10만원 이상을 소비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현장 선착순 구매 기회를 제공하며, 해당 영수증을 지참할 경우 강진사랑상품권 2만원을 추가로 증정하는 지역상권 연계 이벤트도 진행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준 하맥축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올해도 전석 매진을 기대하고 하멜촌맥주와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 등 강진의 대표 자원을 널리 알리고 지역 상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진=정영록 기자

땅끝마을 해남에 문재인 前 대통령도 ‘발길’

미항사·대흥사 여름휴가 차 방문

고시공부 장소 특별한 애정 가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름휴가 차 땅끝마을 해남을 찾았다.

4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해남 달마산 미항사와 두륜산 대흥사를 방문, 여름휴가를 보냈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올해 여름 휴가지로 전남도 각 지역을 여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해남에서 1박2일의 일정을 보내며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해남 대흥사는 청년 문재인이 고시공부를 했던 곳으로, 자신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 마음을 추스르게 된 대흥사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흥사에서 8개월여 만에 고시 1차를 합격하면서 본격적인 법조인의 길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여름휴가차 해남을 방문한 가운데 명현관 해남군수가 해남 방문을 환영했다. <해남군 제공>

들어서게 됐고,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다.

자신이 공부하던 고시방과 대흥사를 둘러본 문 전 대통령은 “해남은 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라며 “남도의 아름다운 문화와 자연을 많은 이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름휴가지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명현관 해남군수와 박지원 국회의원 등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 해남 방문을 환영하며, 대통령 재임시절 호남에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는 이번 여름 휴가동안 해남을 비롯해 안도, 신안, 강진 등을 두루 여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에서는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 미항사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남 대흥사를 둘러보고, 대흥사에 위치한 ‘유선관’에서 숙박하는 1박2일 일정을 보냈다. /해남=박필용 기자

영광군, 지난달 인구 5만3천명 돌파

5년 전 수준 회복...전입자에 꽃다발

영광군은 4일 “올해 7월31일 기준 인구 5만3천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같은 기간 5만1천340명 대비 1천688명이 증가한 수치로,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는 대부분의 지자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특히이수치는 영광군이5년 전(2020년 5만3천99명) 인구수준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영광군은 인구 5만3천명 돌파를 기념해 5만3천번째 전입자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사진>

주인공은 지난달 29일 영광읍에 전입한 ‘김세원(44)씨로, 새로운 보금자리로 영광을 선택했다.

김씨는 “자연환경과 생활 인프라 등을 고려해 영광으로 오게 됐다”며 “이렇게 직접 환영을 받으니 기쁘고, 지역에 잘 정착해 주변 이웃들



과도 즐겁게 지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인구 5만3천명 돌파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영광이 사람이 모이고 삶이 이어지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군민의 삶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누구나 환영받는 영광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맛플무안몰’ 8월말까지 할인 기획전

최대 1만원 쿠폰·신규가입 이벤트

무안군은 4일 “5일부터 군 공식 쇼핑몰 ‘맛플무안몰’에서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는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프로모션 기간은 5일부터 31일까지로 ‘꽁 없는 물렛이벤트’는 ‘맛플무안몰’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물렛을 돌려 최소 2천원부터 최대 1만원까지의 할인쿠폰을 무작위로

제공한다. 또한 같은 기간 맛플무안몰 카카오톡 채널을 신규 추가하는 회원에게는 즉시 1천원 적립금을 지급한다.

이재광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할인 기획전은 무안군민이 정성껏 생산한 농산물을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실질적인 구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신안 ‘여름새우란’ 특별전...청초한 자태 뽐낸다

12-17일 압해읍 항해교류박물관서

신안군이 무더운 여름, 청초한 자태를 뽐내는 ‘여름새우란’ (사진)을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다.

4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오는 12-17일 압해읍 항해교류박물관 (1004섬 분재정원 내)에서 진행된다.

이번 특별전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신안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소중한 자생식물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여름새우란은 난초과 식물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생태적 특징을 지닌 국내 자생식물이다. 우리나라의 다른 새우란들이 주로 봄에 개화하는 것과 달리, 여름새우란은 8월에서 9월 사이에 꽃을 피우는 유일한 새우란 원종이다.

특히 제주도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꽃피기가 없고 떡잎에서 꽃대가 올라오는 독특한 성장 양상을 보이는 점



이 특징이다.

이번 특별 전시회에서는 신안군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한 여름새우란 원종 100여점이 중심을 이룰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풍란, 흑산도 비비추 등 신안군 섬 지역의 다양한 도서 자생식물들도 함께 전시돼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멸종위기 자생식물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여름새우란의 개화를 기념하기 위해 새우란 소재 기념품 전시도 함께 진행한다.

신안군은 2013년 출판 전시를 시작으로 자생란 보존 및 산업화에 앞장서 왔다. 2019년 신안 톨립축제장 새우란 특별전을 비롯해 2021-2022년에는 새우란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2023년부터는 전국 규모의 새우란 축제와 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2024년 6월에는 군화를 ‘신안새우난초’로 공식 지정하는 조례를 개정해 자생식물의 생물 주권 확보와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철, 쉽게 보기 힘든 청초한 꽃 ‘여름새우란’을 통해 많은 이들이 자연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다양성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안=양훈 기자

함평, 로컬푸드 인증 상표 개발 본격 착수

농약잔류검사 결과 등 표시

함평군이 로컬푸드의 품격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자체 인증 상표 (BI) 개발에 본격 나섰다.

4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로컬푸드 운영단계와 관계 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평로컬푸드 인증제 상표 (BI)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함평군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품질과 위생 정보를 투명하게 담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회의에서는 전문가 컨설팅을 토대로 상표 개발 방향을 공유하고, 로컬푸드에 신뢰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상표 (BI)에는 생산자, 농약잔류검사 결

과 등 주요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해 함평군이 인증한 우수농산물이라는 점을 누구에게나 직관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함평군은 향후 관계자 의견 수렴과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최종 상표명과 디자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군 인증 상표를 개발해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먹거리를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며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연수 기자



목포시 상동행정복지센터가 최근 청사 밖에 텐트 2동을 설치, 주민들의 원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목포시 상동행정복지센터 제공>

목포 상동·부흥동·유달동, 민생쿠폰 배려 행정 ‘귀감’

야간 발급·찾아가는 서비스 등

목포시 상동·부흥동·유달동 행정복지센터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과정에서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배려 행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4일 목포시에 따르면 상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청사 밖에 텐트 2동을 설치해 발급창구를 확대 운영했다.

상동은 취약계층과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센터는 코로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당시의 혼잡을 거울삼아 사전 대비에 나섰다.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통장 10명도 오전·오후로 나눠 신청서 대필 봉사에 참여했다.

부흥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센터 2층 강당에서 평일 방문이 어려운 주

민들을 위해 오후 8시까지 ‘야간 발급창구’를 운영했다.

이번 야간 발급창구는 김현종 동장의 제안에 부흥동 전 직원이 동참해 운영했으며 신청 편의를 위해 민원서류 발급도 지원했다.

유달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30일 교통여건이 열악해 복지 혜택을 제때 누리지 못하는 도서지역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지원했다.

마을회관을 찾은 한 어르신은 “몸이 불편해 육지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챙겨주니 든든하고 고맙다”고 말했다.

김일섭 유달동장은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들이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